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을 지닌 국가로, 최소 35개 언어를 사용하는 54개 이상의 원주민 집단이 다수의 벙골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2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원주민 인구는 약 165만 478명¹으로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한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원주민들은 실제 인구가 약 4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² 원주민 인구의 대다수는 방글라데시 평원 지역에 거주하며,³ 나머지는 치타공 구릉지대(Chittagong Hill Tracts, CHT)에 거주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원주민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헌법 제15차 개정 이후, 벙골인 이외에 독자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에 명시되었다.⁴ 하지만 문화적 측면만 언급될 뿐, 원주민의 경제적·정치적 권리, 특히 토지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1997년 치타공 구릉지대(Chittagong Hill Tracts, CHT) 협정은 원주민과 방글라데시 정부 간 주요 쟁점과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합의였다. 이 협정은 해당 지역에 특별 행정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지금, 치타공 구릉지대(Chittagong Hill Tracts, CHT) 토지위원회의 활성화, 치타공 구릉지대 기관에 대한 권한 및 기능 이양, 치타공 구릉지대 지역의 '부족(tribal)' 지역으로서의 특성 보존, 비무장화, 국내 실향민 재정착 등 협정의 주요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하시나(Hasina) 독재 정권의 붕괴

7월 봉기로 널리 알려진 학생과 민중 주도의 봉기는 2024년 8월 5일, 15년간 점점 더 억압적인 통치를 이어오던 독재자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AL)을 무너뜨렸다. 집권 기간 동안 하시나 정권은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광범위한 부패를 조장했다.

아와미 연맹(AL) 정부는 언론을 검열하고, 디지털보안법(Digital Security Act)과 같은 가혹한 법률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으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및 사법 제도를 조작했다. 정권 붕괴로 이어진 운동은 6월 학생 주도 시위로 시작되었다. 시위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고 차별적인 독립 유공자 후손에 대한 30% 채용 할당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정권은 시위대를 라자카르(razakars), 즉 반역자로 낙인 찍고, 당 간부와 학생 조직인 방글라데시 차트라 연맹(Bangladesh Chhatra League)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잔인하게 대응했다. 운동이 확대되던 7월 말, 국가 공권력은 학생과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8월 5일, 시위는 전면적인 대중 봉기로 발전했고, 결국 아와미 연맹(AL) 정부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으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834명이 목숨을 잃고,⁵ 수백 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로 인해 산탈족 원주민 학생 1명이 사망했으며, 53명 이상의 원주민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⁶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 – 원주민에게 새로운 희망인가?

시위 이후 임시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 운동의 핵심 정신은 국가의 차별적 관행을 뿌리 뽑아 국가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평원 지역과 치타공 구릉지대(CHT)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원주민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공동체로, 수년간 온갖 형태의 차별에 희생되어 왔다.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기조로 하는 임시 정부가 구성된 지금이야말로 방글라데시 원주민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임시 정부 수석 고문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박사가 국민에게 보낸 취임 연설에서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였다.⁷ 여러 다른 고문들과 주류 언론도 이제 원주민을 지칭하는 현지 용어인 ‘아디바시(Adivasi)’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정부 시절에는 드물었던 일이다.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방글라데시 원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이다. 새롭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사회라는 비전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력과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국가 개혁 과정에 원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원주민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정책 입안자, 시민사회단체, 언론 및 기타 주체들의 관심을 얻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임시 정부는 전반적인 국가 개혁 과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1개의 주제별 개혁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헌법개혁위원회, 선거개혁위원회, 반부패위원회 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 행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여성부 개혁위원회, 보건 부문 개혁위원회, 지방정부개혁위원회, 언론개혁위원회, 노동개혁위원회.^{8, 9}

원주민 공동체와 소수자 공동체 출신 대표들은 방글라데시 개혁위원회 구성 초기 단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포용성과 대표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면서, 임시 정부는 여성부 개혁위원회와 지방정부개혁위원회에 원주민 공동체 출신 대표 2명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 기타 소수 집단은 자신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위원회에서 여전히 대표성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헌법개혁위원회, 선거개혁위원회, 또는 원주민의 권리와 직접 연계된 기타 위원회에는 여전히 원주민 공동체 출신 대표가 없다. 이러한 지속적인 부재는 방글라데시의 정책 결정 과정, 특히 원주민의 문화 보존, 토지권, 전반적인 사회 정의 등 중요한 영역에서 원주민 및 소수자 공동체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수민족’을 위한 1% 할당제

2018년 채용 할당제 개혁 운동은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운동 이전, 원주민 공동체는 정부 차원의 채용 할당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 서비스 직종 일자리에 대해 5%의 할당을 받고 있었다. 이 할당은 본래 56%로 설정된 정부 할당제의 일부로,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⁰

학생들은 할당 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56%에 달하는 할당량 때문에 능력 있는 학생들이 정당하게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므로 이는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6% 할당 중 30%는 참전한 독립 유공자를 위해 할당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독립 5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 할당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렇게 반차별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행정 명령을 통해 할당 제도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 후 2024년, 고등법원은 해당 행정 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하고 이전의 할당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는 즉시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촉발했다. 정부와 여당 간부들은 운동을 진압하려 했고, 많은 곳에서 학생 시위대가 정부군에 의해 공격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과 대중을 더욱 분노하게 했고, 결국 반차별 운동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5% 할당제의 폐지는 이미 제한된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2024년 개혁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정부는 원주민을 '소수민족'이라 지칭하며, 이들을 위한 1% 할당제를 재도입했다.¹¹ 이러한 변화가 부분적 승리로 여겨지기는 했지만, 많은 원주민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현재의 채용 할당량이 그들이 겪어온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불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비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표성 확보와 평등한 기회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1900년 치타공 구릉지대 규정” 관련 업데이트 및 최근 심리 보고

‘1900년 치타공 구릉지대(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규정’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처음 도입된 법적 틀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행정 및 재산권을 현재까지 규율하고 있다.

치타공 구릉지대(CHT)의 원주민에게 이 규정은 그들의 권리, 토지, 문화 보존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1997년에 치타공 구릉지대 평화 협정(CHT Peace Accord)을 통해 원주민의 자치권과 토지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원주민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외부 압력으로 인해 계속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정의 유효성은 방글라데시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016년, 대법원 항소부는 와가차라 티 에스테이트 유한회사(Wagachara Tea Estate Ltd)와 무하마드 아부 타헤르 및 기타 당사자(Muhammad Abu Taher & Others) 간의 사건(16 BLD (AD), 36, 2016)에서 '1900년 치타공 구릉지대(CHT) 규정' 적용을 지지하며 원주민 토지를 보호하는 규정의 권한을 인정했다. 2017년, 법원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랑가마티 푸드 프로덕츠 및 기타 당사자(Rangamati Food Products and Others) 간의 사건(69 DLR (AD), 2017)에서 규정을 '사문화된 법'으로 선언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음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더욱 공고히 했다.¹² 치타공 구릉지대(CHT) 규정에 관한 법적 공방은 핵심 조항을 변경하려는 상당한 시도들과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 압둘 아지즈 아칸드(Abdul Aziz Akhand), 압둘 말렉(Abdul Malek) 등의 벙골인 정착민 측과 아민 우딘(Amin Uddin) 전 법무장관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규정의 전체 57개 조항 중 27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 27개 조항은 자치권, 자기 결정권, 원주민 토지 및 문화 관행 보호를 보장하는 규정의 핵심적 특징을 담고 있다.¹³ 특히 이러한 조항의 삭제는 규정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치타공 구릉지대(CHT) 지역 원주민 공동체에 부여된 자치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이 조항들은 원주민 관습법, 토지권, 통치 체계의 인정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조항이 삭제될 경우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대법원 항소부 전원합의체는 치타공 구릉지대 규정의 사문화 여부에 대한 재심 심리를 열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8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¹⁴

'1900년 치타공 구릉지대(CHT) 규정'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심리는 2024년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대법원 항소부는 규정을 지지한 이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심 청구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법원의 결정은 '1900년 치타공 구릉지대 규정'의 향후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는 분기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예정된 심리는 연기되었다.¹⁵ 현재로서는 심리가 언제 다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1900년 치타공 구릉지대 규정’을 지지하고 옹호하려는 원주민의 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규정은 원주민의 토지권을 확보하고, 강제 이주로부터 보호하며, 고유한 문화와 통치 구조의 보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이기 때문이다.

치타공 구릉지대 인권의 심각한 상황

2024년 치타공 구릉지대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으며, 초법적 살인, 자의적 구금, 공동체 간 폭력, 토지 강탈, 민주적 운동 탄압 등의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 이 해에는 장기적인 문제에 뿌리를 둔 조직적 학대가 계속되었고, 새로운 당면 과제와 불충분한 국가 개입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 총 200건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6,000명 이상의 원주민이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¹⁶

국가 공권력, 벵골인 정착민, 토지 강탈자들에 의한 공격은 물론 원주민 정치 집단 간 폭력 충돌로 인해 최소 21명이 사망했다.^{17, 18, 19} 140명 이상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임의로 체포되거나, 날조된 혐의로 인해 기소되기도 했다.²⁰ 또한 원주민이 소유한 120채 이상의 주택, 상점, 사무실, 사원이 방화와 약탈을 당했고, 다수의 원주민이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또한 약 10건의 불법 토지 강탈 사건에서 기업, 유력 인사, 벵골인 정착민들이 약 2,314에이커의 토지를 탈취했다.²¹

특히 9월 18~20일, 벵골인 정착민들이 카그라차리(Khagrachari)와 랑가마티(Rangamati)의 원주민 공동체를 상대로 자행한 연쇄적 폭력은 치타공 구릉지대(CHT) 협정 이후 비국가 행위자에 의해 자행된 공격 중 가장 폭력적인 사례 중 하나로서 기록되었다.²² 반다르반(Bandarban)의 원주민인 바움(Bawm) 공동체 주민들은 국가 공권력의 탄압으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최소 16명의 바움족이 살해되었고, 143명이 임의 체포되거나 조작된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다. 또한 28명의 바움족이 임시 구금되었고, 42 가구가 농경 활동을 저지당했다.^{23, 24}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폭력적인 연쇄 공격이 발생한 카그라차리(Khagrachari)와 랑가마티(Rangamati) 지역

벵골인 정착민들이 벌인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으로 4명의 원주민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원주민의 주택, 상점, 사무실, 불교 사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방화를 자행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19일에 디기날라(Dighinala), 카그라차리 사다르(Khagrachari Sadar)에서, 9월 20일에는 랑가마티(Rangamati)에서 발생했다.²⁵

폭력사태는 9월 18일 카그라차리(Khagrachari)에서 벵골 정착민인 마문(Mamun)이 군중에게 살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시작되었다. 오토바이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된 마문은 도주 과정에서 전봇대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에게 16건의 형사 사건 기록이 있었음을 확인했다.²⁶ 그러나 정착민 집단은 그의 죽음에 대해 현지 원주민을 비난했고, 이로 인해 9월 19일부터 항의 집회가 촉발되어 연이어졌다. 디기날라(Dighinala)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정착민들은 줌머족(Jummos)²⁷을 공격하고 주택과 상점에 불을 질렀다.²⁸ 이에 대응하여 줌머족은 저녁에 카그라차리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다. 군용 차량이 발포하며 이들을 무력으로 해산시켰고 이 과정은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다난조이 차크마(50세), 주난 차크마(22세), 루벨 트리푸라(24세) 등 3명의 줌머족이 사망했다. 디기날라(Dighinala)와 카그라차리 사다르(Khagrachari Sadar)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인해, 약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²⁹

폭력은 9월 20일 랑가마티 사다르(Rangamati Sadar)로 확산되었으며, 디기날라와 카그라차리 사다르에서의 공격에 항의하는 줌머족들이 행진하던 중, 정착민들에게 투석 공격을 받았다. 바나루파 사원(Banarupa Mosque)의 확장기를 통해 줌머인들이 모스크를 공격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폭력 사태는 더욱 격화되었다. 정착민들은 줌머족을 공격했고, 주택, 상점, 그리고 모이트리 비하르(Moitri Bihar) 불교 사원을 비롯한 종교 시설을 약탈하고 불태웠다. 치타공 구릉지대(CHAT) 지역 의회와 치타공 구릉지대(CHAT) 학생 위원회의 사무실 또한 방화 및 훼손되었다. 이러한 공격으로 아닉 쿠마르 차크마(22세)가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5명 이상의 모임과 공개 집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제144조가 발령되었지만,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후였다.³⁰

10월 1일, 7학년 원주민 소녀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 교사 소헬 라나가 군중에게 살해된 사건에 이어, 카그라차리(Khagrachari)에서 폭력사태가 추가로 발생했다. 소헬은 원주민 집단의 항의로 결국 감금되었고, 그곳에서 당한 폭행으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정착민들은 초기 공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카그라차리 사다르의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 더 많은 폭력을 가하며 대응했다. 이러한 공격으로 여러 원주민이 부상을 입었고, 원주민의 상점과 주택 여러 채가 파괴되었다.³¹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보안군이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러웠다. 증언에 따르면 보안군은 폭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군사 시설 근처에서 폭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관했다. 군인들은 줌머족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공격장면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으며, 저항하는 사람들을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³²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폭력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체포되지 않았다.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평원 지역과 치타공 구릉지대(CHT) 모두에서 발생하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여성과 아동 억압 방지법(2000), 가정 폭력 예방 및 보호법(2010),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2013~2025) 등의 보호 법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2024년, 방글라데시에 기반을 둔 인권 단체인 카파엥 재단(Kapaeeng Foundation)은 원주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사건 17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는 성적 또는 신체적 폭행을 경험한 17명의 원주민 여성과 소녀다. 이 사건들의 세부 내용은 충격적이다. 4명의 피해자가 강간당했고, 1명이 살해되었으며, 6건은 강간 미수였고, 3명은 집단 강간에서 살아남았으며, 1명은 납치되었고, 1명은 실종되었으며, 1명은 성희롱을 당했다. 이 수치는 실제 발생 규모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가해자는 남성이었으며 그들의 배경은 다양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국가 당국의 대응은 일관성이 없었다. 가해자에 대한 경찰 고소가 접수된 것은 5건에 불과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거나, 관련 국가 당국의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지연되었다. 국가 당국의 이러한 일관성 없는 대응은 원주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라피티를 통해 투쟁을 표현하는 원주민 학생들

7월 봉기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다양성을 포용하고 차별을 거부하며,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방글라데시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봉기 기간과 그 후 몇 주 동안 그라피티는 청년들에게 저항의 강력한 도구이자, 그들이 바라는 변화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원주민 학생들은 다카의 거리와 치타공 구릉지대(CHT)의 세 구릉 지역을 캔버스로 여기며 포용적인 방글라데시에 대한 그들의 꿈을 표현하며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의 그라피티는 오랜 기간 동안 원주민의 정체성이 헌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지속적인 폭력, 개발로 인한 파괴, 미이행된 치타공 구릉지대(CHT) 협정, 토지 박탈, 치타공 구릉지대의 지속적인 군사화 등 원주민 공동체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을 부각시켰다. 그라피티 벽화는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치타공 구릉지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여전히 차별, 억압, 시민 활동 공간의 축소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그들은 투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 정의,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고 존중되는 미래에 대한 깊은 갈망을 표현했다.

주석 및 참고문헌

1.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preliminary report 2022." p. 10.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22.
2. Barkat, Abul. "Political Economy of Unpeopling of Indigenous Peoples: The Case of Bangladesh." Paper presented at the 19th biennial conference, Bangladesh Economic Association, Dhaka, 8-10 January 2015.
3. Halim, Sadeka. "Land loss and implications on the plain land Adivasis." In "Songhati", edited by Sanjeeb Drong, p. 72. Bangladesh Indigenous Peoples' Forum, 2015.
4. Article 23A stipulates: "The State shall take steps to protect and develop the unique local culture and tradition of the tribes, minor races, ethnic sects and communities."
5. Government Gazette 2025, Notification no. 48.00.0000.004.37.243.2025.03, Ministry of Liberation War Affairs,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6. Prothomalo. "Gazette publication of the martyrs of the July Uprising 2024." 16 January 2025. <https://www.prothomalo.com/bangladesh/qam61rdeh8>
7. Prothomalo. "Chief adviser's address to the nation." 25 August 2024. <https://en.prothomalo.com/video/xroe6p8h3o>
8. The Business Standard. "Who are the heads of the six reform commissions?" 11 September 2024. <https://www.tbsnews.net/bangladesh/who-are-heads-six-reform-commissions-939071>

9. Shawon, Ali Asif. "Four new reform commissions announced." Dhaka Tribune, 17 October 2024.
<https://www.dhakatribune.com/bangladesh/government-affairs/362244/four-new-reform-commissions-announced>
10. The Daily Star. "Completely on merit." 4 October 2018. <https://www.thedailystar.net/country/quota-system-in-bangladesh-cabinet-approves-scrapping-it-top-govt-jobs-1642021>
11. The Daily Star. "SC verdict on govt jobs: 93pc on merit, 7pc from quota." 22 July 2024.
<https://www.thedailystar.net/news/bangladesh/news/sc-verdict-govt-jobs-93pc-merit-7pc-quota-3660211>
12. IWGIA. "Bangladesh: Protect Indigenous Peoples' rights in Chittagong Hill Tracts." 9 July 2024.
<https://iwgia.org/en/news/5546-bangladesh-protect-indigenous-peoples-right-cht.html>
13. Interview with Advocate Nicolas Chakma.
14. Kyaw, Thain Shewe. "Extreme Nationalism in Opposition to The CHT Regulation 1900." Centre for Governance Studies, 1 August 2024. <https://cgs-bd.com/article/24611/Extreme-Nationalism-in-Opposition-to-The-CHT-Regulation-1900>
15. Minority Rights Group, IWGIA, FIAN International. "Bangladesh: Protect Indigenous Peoples' rights in Chittagong Hill Tracts." 9 July 2024. <https://minorityrights.org/bangladesh-protect-indigenous-peoples-rights-in-chittagong-hill-tracts/>
16. Parbatya Chattagram Jana Smahati Samiti (PCJSS), Information and Publicity Department. "Annual Report 2024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1 January 2025.
https://ipdpcjss.wordpress.com/2025/01/01/%e0%a6%aa%e0%a6%be%e0%a6%b0%e0%a7%8d%e0%a6%ac%e0%a6%a4%e0%a7%8d%e0%a6%af-%e0%a6%9a%e0%a6%9f%e0%a7%8d%e0%a6%9f%e0%a6%97%e0%a7%8d%e0%a6%b0%e0%a6%be%e0%a6%ae%e0%a7%87%e0%a6%b0-%e0%a6%ae%e0%a6%be-2/?fbclid=IwY2xjawH1rDxleHRuA2FlbQlxMAABHWaziLaH-Wb7Pg2g9Q-b5mOpXfxoKCJtxpagf-LFQD1g86Rb-Op7PVKWkXA_aem_ZLzPg1WnSShWwl64WMVMDg
17. The numbers are contested in this regard. The PCJSS report claims that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s 21, while the UPDF report claims it to be 41.
18. Ibid.
19. 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 (UPDF). "Press Release on Annual Human Rights Report 2024 in CHT." 2025. <https://updfcht.com/wp-content/uploads/2025/01/Press-release-on-Annual-HR-Report-2024-in-CHT.pdf>
20. Ibid.
21. Ibid.
22. AIPP, CHT Commission and IWGIA. "Joint Statement: Call for Urgent action on Repeated Violence in CHT." 8 October 2024. <https://iwgia.org/en/news/5566-joint-statement-urgent-action-repeated-violence-cht.html>
23. Ibid.
24.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Caught in the Crossfire: The Plight of the Bawm Community and Unveiling the Complex Ties Between the Bangladesh Military and the Kuki-Chin National Front." 9 September 2024. <https://iwgia.org/en/news/5554-caught-crossfire-bawm-complex-ties-between-bangladesh-military-kuki-chin-national-front.html>
25. Kapaeeng Foundation, 2025, Human Rights Report 2024 on Indigenous Peoples in Bangladesh.
26. Jugantor. "Young man dies on stolen motorcycle." 18 September 2024. <https://www.jugantor.com/country-news/853823>

27.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CHT are collectively known as Jummo.
28. IWGIA. "Urgent Alert: Violent attacks on Indigenous Jummo People in Bangladesh." 19 September 2024. <https://iwgia.org/en/news/5561>
29. Kapaeeng Foundation, 2025, Human Rights Report 2024 on Indigenous Peoples in Bangladesh.
30. Kapaeeng Foundation, 2025, Human Rights Report 2024 on Indigenous Peoples in Bangladesh.
31. IWGIA, AIPP. "Joint Statement: Call for Urgent Action on Repeated Violence in CHT." 8 October 2024. <https://iwgia.org/en/news/5566-joint-statement-urgent-action-repeated-violence-cht.html>
32. Ibid.

팔랩 차크마(Pallab Chakma), 카파엥 재단 사무국장.

이메일: pallab.juju@gmail.com

바블루 차크마(Bablu Chakma)는 인권 옹호자이다.

이메일: babluchakmacht@gmail.com

